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93-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6 성소수자 인식조사]

동성결혼 법적 허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

2026. 8. 19.

담당자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 입양 찬반 입장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53%, 반대 입장 6년 연속 50%대 유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반대 41%, 허용 34%로 7%포인트 격차

2001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제화한 이후, [아시아에서는 대만과 태국에 이어 올해 6월 네팔이 세 번째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아시아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여전히 다수다. 우리나라에서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입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2024년 7월, 대법원이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회보장제도에서 차별받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으나, 이 판결이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거나 민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한 것은 아니다. 더불어 [동성 간 결혼에 대한 수용도](#)가 20%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은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차별금지법 제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번 조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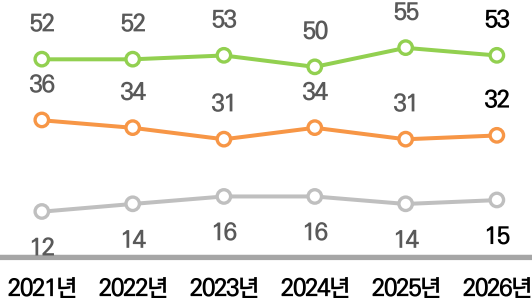
동일한 성별 간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여전히 우세하다. 올해 조사에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은 32%, 반대하는 사람은 53%이다(모르겠다 15%). 2021년 첫 조사 이후 6년 연속으로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의견이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반대 응답은 작년(55%)보다 2%포인트 줄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뒤 소폭 완화되었다.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41%)이 찬성 의견(34%)을 7%포인트 앞선다(모르겠다 26%). 지난해 격차가 11%포인트까지 벌어졌으나, 올해는 허용 반대가 줄고 찬성이 늘어 격차가 다소 좁혀졌다.

동성결혼 법제화 반대 53%, 찬성 32%
법제화 반대 입장, 6년 연속 50%대 유지

(단위 : %)

—○— 찬성(매우+대체로) —○— 반대(매우+대체로)
—○— 모르겠다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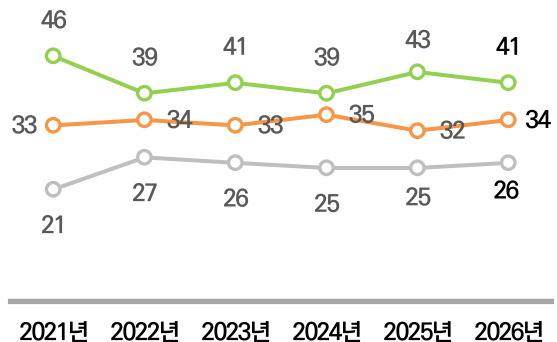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조사(총 6회)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 허용 불가 41%, 허용 34%
허용 찬반 격차 7%포인트로 작년 대비 축소

(단위 : %)

—○— 허용해야 한다 —○— 허용하면 안 된다
—○— 모르겠다



질문: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1년부터 매년 조사(총 6회)

남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60대 이하 남성의 반대 비율은 50~60%대로 과반이며, 70세 이상 남성에서는 80%까지 높아진다. 여성은 찬성(38%)보다 반대(45%) 입장이 7%포인트 높지만, 세대별로 나누어 보면 인식 차이가 뚜렷하다. 30대 이하 여성에서는 찬성 응답이 우세한 반면(18~29세 여성 찬성 64%·반대 20%, 30대 여성 찬성 49%·반대 30%), 40세 이상 여성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높다. 40세 이상은 남녀 모두 반대 입장이 앞선다.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서도 18~29세 여성은 49%가 찬성(반대 24%)하고, 30대 여성은 찬성(37%)과 반대(34%)가 엇비슷하다. 반면 남성은 60대(찬성 39%·반대 38%)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을 앞선다.

동성결혼 법제화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 대한 인식은 남녀 모두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두 사안 모두 반대 입장이 앞서며, 남성에서 그 경향이 더 뚜렷하다. 여성은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입장이 우세한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고, 남성은 연령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한다.

이념 성향과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인식이 갈린다. 보수 성향 응답자, 성소수자 지인이 없는 사람, 성소수자에 부정적 감정을 가진 집단에서는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과 자녀 입양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반대로 진보 성향 응답자, 성소수자 지인이 있는 사람,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에서는 두 사안 모두 찬성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종교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개신교·천주교·불교 신자 모두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대해 반대가 찬성보다 높은 가운데, 개신교 신자의 반대 비율이 73%로 특히 높다(천주교 47%, 불교 51%). 동성 커플 자녀 입양에서도 개신교 신자의 반대가 57%로 가장 높은 반면, 천주교와 불교는 찬반 입장이 비교적 팽팽하게 나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의 47%, 동성결혼의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64%는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에도 반대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3명가량(28%)은 동성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30대 이하 여성, 진보층에서 ‘동성결혼 법적 허용’과 ‘동성 커플 자녀 입양’ 모두 찬성 비율 높아 남성, 보수층, 개신교 신자 등은 ‘반대 입장’ 우세…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반대 입장’ 우세

(단위 : %)

	사례수 (명)	동성결혼 법적 허용			동성 커플 자녀 입양		
		찬성 (매우+대체로)	반대 (매우+대체로)	모르겠다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모르겠다
전체	(1,000)	32	53	15	34	41	26
성별							
남자	(496)	26	61	12	32	44	24
여자	(504)	38	45	18	35	37	28
연령							
18~29세	(149)	43	40	17	41	33	26
30대	(149)	37	40	22	32	39	29
40대	(168)	25	55	19	27	43	29
50대	(194)	37	50	13	35	43	22
60대	(178)	30	59	10	36	38	26
70세 이상	(162)	20	70	10	31	45	24
성별x연령							
남자_18_29세	(77)	24	58	18	33	42	25
여자_18_29세	(72)	64	20	16	49	24	27
남자_30대	(79)	27	50	23	28	44	28
여자_30대	(70)	49	30	22	37	34	30
남자_40대	(86)	19	64	17	23	47	30
여자_40대	(82)	33	46	21	31	40	29
남자_50대	(98)	35	60	5	31	49	20
여자_50대	(96)	39	40	21	38	37	25
남자_60대	(87)	31	59	9	39	38	23
여자_60대	(91)	29	60	11	33	38	29
남자_70세 이상	(69)	17	80	3	38	44	18
여자_70세이상	(93)	22	62	16	25	46	29
이념성향							
진보층	(275)	48	42	10	48	31	21
중도층	(378)	31	50	20	28	41	31
보수층	(316)	20	69	11	28	51	21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69)	30	51	20	28	47	25
없음	(831)	33	53	14	35	39	26
종교							
개신교	(216)	18	73	9	21	57	22
천주교	(114)	41	47	11	37	36	27
불교	(147)	31	51	18	32	39	29
종교 없음	(509)	36	46	17	38	36	26

질문: 동성결혼 법적 허용 -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동성 커플 자녀 입양 -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소수자 친화 집단에서 ‘동성결혼 법적 허용’과 ‘동성 커플 자녀 입양’ 모두 ‘찬성’
성소수자 지인이 없거나 적대적인 집단, 동성결혼 반대자는 자녀 입양에도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

(단위 : %)

사례수 (명)	동성결혼 법적 허용			동성 커플 자녀 입양		
	찬성 (매우+대체로)	반대 (매우+대체로)	모르겠다	허용해야 한다	허용하면 안 된다	모르겠다
전체 (1,000)	32	53	15	34	41	26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2)	60	33	7	55	23	22
없음/모름 (878)	28	56	16	30	43	26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30)	70	21	9	61	15	24
중간 (397)	37	35	28	40	25	35
적대적 (473)	18	76	6	21	61	19
동성결혼 법적 인정 찬반						
찬성 (321)	-	-	-	70	13	17
반대 (528)	-	-	-	16	64	19
모름 (150)	-	-	-	16	17	67

질문: 동성결혼 법적 허용 -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동성 커플 자녀 입양 - 동성 커플이 자녀를 입양해 키우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기준으로 분류함. 각각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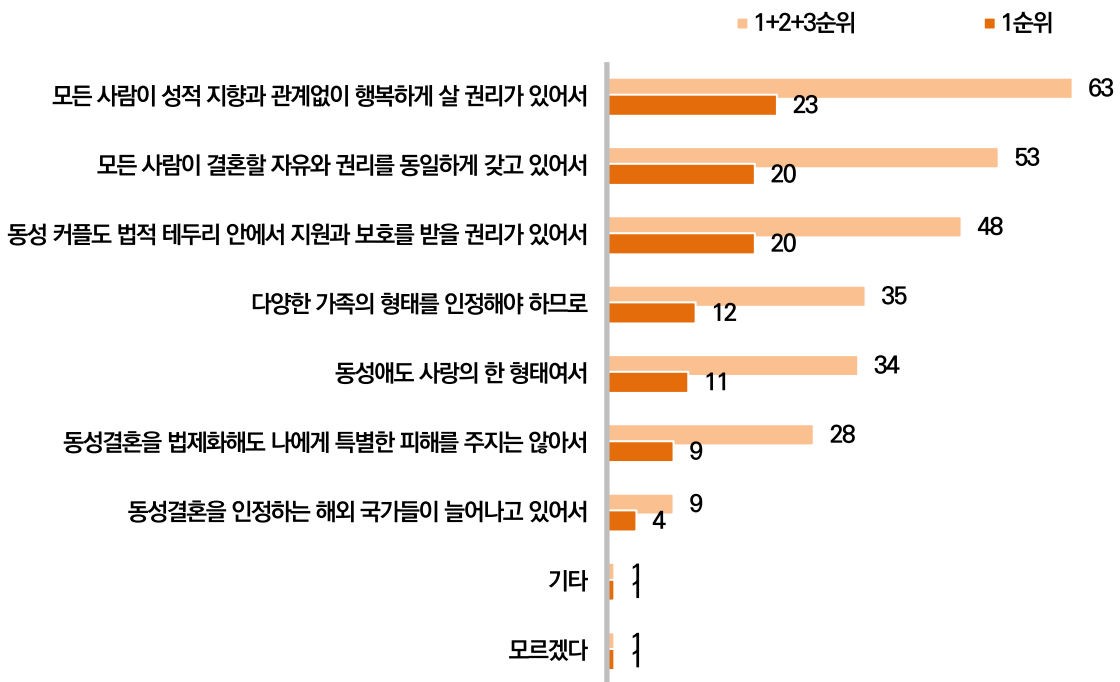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63%)’이 가장 높아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53%)’,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48%)’도 절반 안팎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321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주된 이유는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63%)’을 인정해야 한다(모든 사람이 성적 지향과 관계없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서, 1+2+3순위 63%)는 점을 들었다. 이어서 ‘결혼의 자유 보장’(모든 사람이 결혼할 자유와 권리를 동일하게 갖고 있어서, 53%),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동성 커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어서, 48%)를 찬성 이유로 꼽는 사람도 절반 안팎이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성 커플에게 기본권과 법적 평등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답한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 ‘보편적인 행복권 인정(63%)’이 가장 높아 ‘동등한 결혼의 자유 보장(53%)’, ‘동등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48%)’도 절반 안팎

(단위 : %)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응답자 321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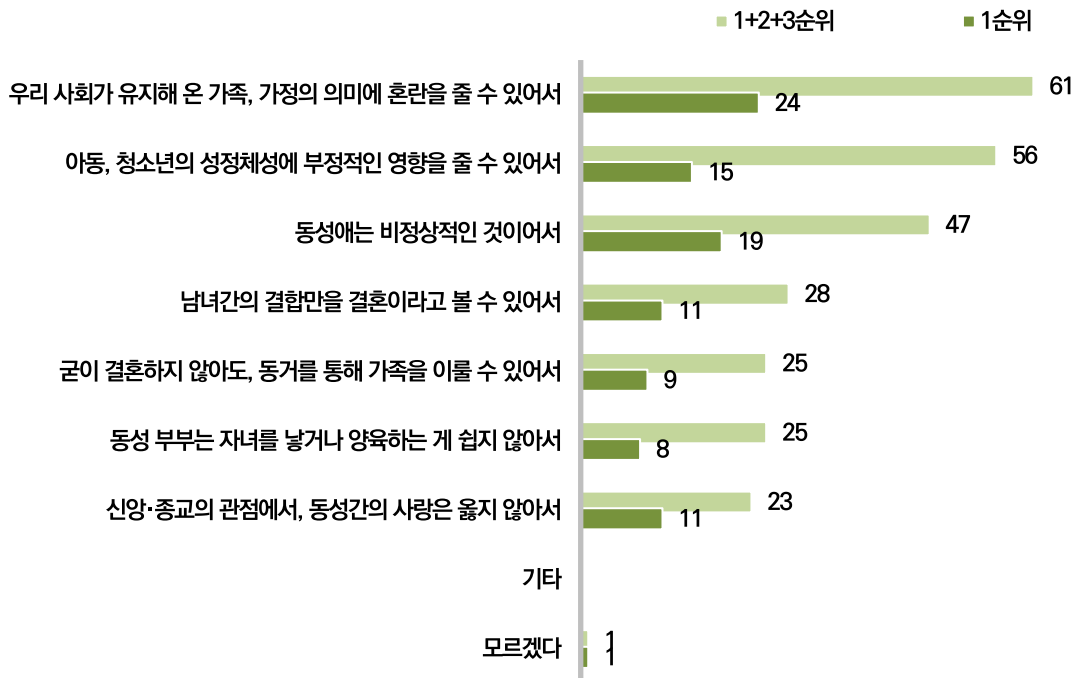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족·가정의 의미 혼란(61%)’ 이어서 ‘아동·청소년 성적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56%로 많아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528명에게 반대하는 이유를 물었다. 주된 이유로 ‘전통적 가치관의 혼란’(우리 사회가 유지해 온 가족·가정의 의미에 혼란을 줄 수 있어서)을 꼽았다(1+2+3순위 61%). 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적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우려하는 응답도 56%로 다수이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사람은 47%이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 및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작년과 비슷하다.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편적 가치를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점에 집중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족관을 중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 ‘가족·가정의 의미 혼란(61%)’ ‘아동·청소년 성적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사람도 56%로 많아

(단위 : %)



질문: 동성결혼(동일한 성별을 가진 사람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순위까지 선택)

응답자 수: 동성결혼 법적 허용에 반대하는 응답자 528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51%, 반대 29%

의료·서비스, 주거, 고용, 교육 등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 적용 ‘찬성’이 반대보다 우세

성별·장애·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이 51%로, 반대(29%)를 22%포인트 앞선다(모르겠다 20%). 차별금지를 구체적인 생활 영역에 적용하는 데 대해서도 의료·서비스(52%), 주거(50%), 채용·승진 등 고용(50%), 학교 등 교육(47%) 등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다. 다만 학교 등 교육 영역은 찬성 47%·반대 37%로 찬반 격차가 10%포인트에 그쳐,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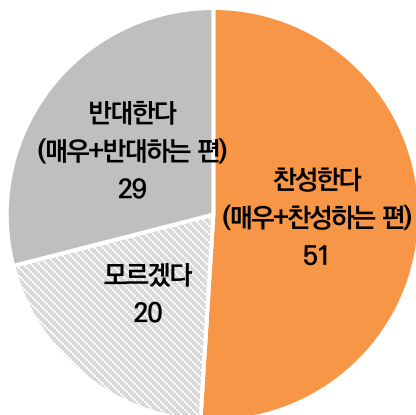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은 응답자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녀 모두 관련 법 제정에 찬성하는 입장이 절반에 달하는 가운데, 여성(54%)이 남성(49%)보다 다소 높다. 연령별로는 18-29세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많으며, 특히 50대(64%)와 60대(61%)에서 가장 높다. 반면 18-29세는 유일하게 반대(40%)가 찬성(34%)을 앞선다. 그중에서도 18-29세 남성은 찬성이 19%에 그치고 반대가 59%로, 전 계층 가운데 반대 응답이 가장 두드러진다. 성별과 연령을 함께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의 찬성이 남성보다 높다. 5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찬성이 반대보다 많고, 70세 이상 여성을 제외하면 모두 과반이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크다. 진보층은 70%가 찬성하는 반면, 보수층은 반대(45%)가 찬성(38%)보다 높다. 종교별로는 천주교(72%)와 불교(51%) 신자는 찬성이 과반인 데 비해, 개신교 신자는 찬성 35%·반대 48%로 종교 집단 중 유일하게 반대가 앞선다. 성소수자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갈려, 호의적인 집단은 찬성이 68%에 이르지만 적대적인 집단은 찬성(41%)과 반대(42%)가 팽팽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세부집단별 인식을 종합하면, 40대 이하 여성·진보층·천주교 및 불교 신자는 찬성 입장에 가깝다. 반면 18-29세 남성·보수층·개신교 신자는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높아 차이를 보인다.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1%, 반대 29%

(단위 : %)



질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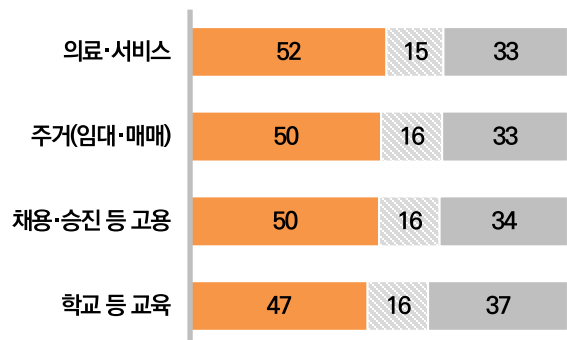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의료·서비스, 주거, 고용, 교육 등에서 차별금지법 적용 ‘찬성’ 우세

(단위 : %)

■ 찬성한다(매우+그런 편) ■ 모르겠다 ■ 반대한다(매우+그런 편)



질문: 다음 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여성·진보층·5060세대·천주교 신자에서 높아 18-29세 남성·보수층·개신교 신자에서는 '반대' 입장이 찬성보다 높아

(단위 : %)

	사례수 (명)	찬성 (매우+ 다체로)	반대 (매우+ 다체로)	모르겠다
전체	(1,000)	51	29	20
성별				
남자 (496)		49	32	19
여자 (504)		54	26	20
연령				
18-29세 (149)		34	40	26
30대 (149)		42	26	32
40대 (168)		48	26	26
50대 (194)		64	24	12
60대 (178)		61	27	12
70세 이상 (162)		53	34	13
성별x연령				
남자_18_29세 (77)		19	59	22
여자_18_29세 (72)		49	20	31
남자_30대 (79)		39	30	30
여자_30대 (70)		45	21	34
남자_40대 (86)		41	31	28
여자_40대 (82)		56	21	23
남자_50대 (98)		62	29	9
여자_50대 (96)		67	18	15
남자_60대 (87)		70	19	11
여자_60대 (91)		53	34	13
남자_70세 이상 (69)		58	28	14
여자_70세 이상 (93)		49	39	12

	사례수 (명)	찬성 (매우+ 다체로)	반대 (매우+ 다체로)	모르겠다
전체	(1,000)	51	29	20
이념성향				
진보층 (275)		70	19	11
중도층 (378)		49	25	27
보수층 (316)		38	45	17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69)		47	29	23
없음 (831)		52	29	19
종교				
개신교 (216)		35	48	18
천주교 (114)		72	18	10
불교 (147)		51	30	19
종교 없음 (509)		53	24	22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2)		52	31	16
없음/모름 (878)		51	29	20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30)		68	20	13
중간 (397)		58	17	25
적대적 (473)		41	42	17

질문: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기준으로 분류함. 각각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차별금지법 적용, 네 영역 모두 찬성 우세... 교육 영역만 찬반 격차 작아 성연령·이념·종교·성소수자 태도별 찬반 인식 갈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구체적인 영역에 적용하는 데 대한 찬반은 영역별로 큰 차이 없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의료·서비스(52%)와 주거(50%), 채용·승진 등 고용(50%)에서는 절반 혹은 그 이상이 찬성하며, 학교 등 교육(47%)도 큰 차이 없이 찬성 응답 비율이 높다.

영역별로 차별금지법 적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제정 찬반에서 나타난 집단별 성향이 대체로 유지된다. 진보층, 천주교·불교 신자, 성소수자에 호의적인 집단은 제시한 네 영역 모두에서 찬성이 뚜렷하게 높다. 반대로 보수층, 개신교 신자, 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집단은 모든 영역에서 반대가 찬성을 앞선다. 다만 교육 영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세가 다소 약해지고, 보수층·개신교 신자·성소수자에 적대적인 집단에서는 반대 성향이 더 강해진다.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응답자(47%)와 없는 응답자(52%) 모두 절반 안팎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으며, 고용과 교육 영역에 대한 적용에서도 두 집단 모두 찬성 비율이 높다. 특히 고용과 교육은 자녀의 진로나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임에도, 미성년 자녀를 둔 응답자 역시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상당수가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성별과 연령을 교차해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네 영역 모두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50% 내외를 기록한다. 50세 이상에서는 남녀 모두 과반이 찬성하지만, 70세 이상 여성에서는 찬성 비율이 30~40%대로 낮아진다. 18~29세 남성은 같은 세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반대 입장이 높으며, 특히 고용(53%)과 교육(56%) 영역에서 반대가 두드러진다. 이는 앞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가 59%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던 것과 이어지는 흐름으로, 18~29세 남성은 법 제정뿐 아니라 영역별 적용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강한 편이다.

영역별 차별금지법 적용, 이념·종교·성소수자 태도에 따라 찬반 갈려

진보층·천주교 및 불교 신자·성소수자 호의층은 '찬성' 우세, 보수층·개신교·적대층은 '반대' 우세

(단위 : %)

사례수 (명)	의료·서비스 이용 영역		주거(임대·매매) 영역		채용·승진 고용 영역		학교 등 교육 영역	
	찬성 (매우+찬성 하는 편)	반대 (매우+반대 하는 편)	찬성 (매우+찬성 하는 편)	반대 (매우+반대 하는 편)	찬성 (매우+찬성 하는 편)	반대 (매우+반대 하는 편)	찬성 (매우+찬성 하는 편)	반대 (매우+반대 하는 편)
전체 (1,000)	52	33	50	33	50	34	47	37
연령								
18-29세 (149)	48	34	46	37	43	39	42	40
30대 (149)	49	33	46	36	48	34	45	36
40대 (168)	46	34	43	35	46	33	40	42
50대 (194)	55	31	58	28	55	32	52	34
60대 (178)	61	28	56	30	55	32	58	29
70세 이상 (162)	48	39	51	35	49	35	44	42
성별x연령								
남자_18_29세 (77)	44	44	42	46	34	53	32	56
여자_18_29세 (72)	53	24	51	28	53	25	52	23
남자_30대 (79)	47	37	42	40	46	39	42	39
여자_30대 (70)	52	27	50	31	49	28	47	32
남자_40대 (86)	33	41	32	42	36	39	30	49
여자_40대 (82)	59	27	55	29	57	27	51	34
남자_50대 (98)	57	32	56	30	54	36	53	36
여자_50대 (96)	53	30	61	25	56	28	51	31
남자_60대 (87)	62	27	61	29	58	30	62	27
여자_60대 (91)	61	29	51	31	51	34	53	32
남자_70세 이상 (69)	61	29	62	27	60	29	58	30
여자_70세 이상 (93)	39	46	43	41	42	40	34	51
이념성향								
진보층 (275)	65	26	64	25	65	26	63	29
중도층 (378)	49	29	50	28	47	31	45	34
보수층 (316)	43	45	39	47	40	46	36	49
미성년 자녀 유무								
있음 (169)	50	34	43	40	47	38	45	39
없음 (831)	52	33	52	32	50	33	48	36
종교								
개신교 (216)	39	42	40	40	40	43	38	45
천주교 (114)	68	26	63	27	68	24	63	29
불교 (147)	51	30	51	30	47	29	44	35
종교 없음 (509)	54	32	53	33	51	34	49	36
지인 중 성소수자 유무								
있음 (122)	61	28	62	31	66	24	57	35
없음/모름 (878)	50	34	49	34	47	35	46	37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								
호의적 (130)	62	26	62	27	66	23	62	25
중간 (397)	52	26	53	25	51	25	49	28
적대적 (473)	49	40	45	42	44	45	41	48

질문: 다음 각 영역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어떤 의견이십니까?

비고: '성소수자에 대한 감정'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에 대한 감정을 기준으로 분류함. 각각에 대한 감정을 5점 척도로 물어 매우 적대적이면 1점, 적대적인 편이면 2점, 적대적이지도 호의적이지도 않으면 3점, 호의적인 편이면 4점, 매우 호의적이면 5점으로 간주함. 4개 집단에 대한 점수가 평균 3점을 초과하면 '호의적', 3점이면 '중간', 3점 미만이면 '적대적'으로 분류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6. 5. 22. ~ 26.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6년 4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6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67,375명, 조사참여 1,68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5%, 참여대비 59.5%)
조사일시	• 2026년 5월 22일 ~ 5월 2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